해양수산부 | 보도자료 |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일시 (인터넷) 2026. 11. 24.(화) 11:00
(지면) 2026. 11. 25.(수) 조간
배포 2026. 11. 24.(화) 06:00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통합 추진한다

- 해양 생물 자원 관리와 기초 연구의 연계로 해양 생물 과학 기술 강국 도약 기대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지난 9월 3일 발표된 관계부처 합동 ‘공공기관 기능 개혁 추진 방안’의 일환으로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하 ‘KIOST’)의 통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자원관은 해양수산 생물자원의 확보·보존·활용 및 전시 등 자원 중심의 관리기능을 담당하고, KIOST는 해양 전반에 관한 기초·원천 연구개발을 담당하고 있어 양 기관의 기능 간 유기적인 연계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통합으로 해양 생물 자원 인프라와 기초연구를 종합하여 관리함으로써, 양 기관이 축적한 자원 데이터베이스와 연구 역량을 유기적으로 융합·연계해 연구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내외 정책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국가 해양 생물자원 연구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공공기관 기능 개혁 추진 방안’의 기본 원칙 속에서 원활한 통합 추진을 위해 부처와 양 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해양 기초연구 기관 통합 실무 TF’를 가동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문 기관 용역 등을 통해 통합효과를 높일 수 있는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통합으로 양 기관의 전문성과 핵심 역량을 결집해 국가 해양 생물 과학 기술 경쟁력이 한층 더 높아질 수 있길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해양정책국 해양수산생명자원과	책임자	과 장	이지연 (051-773-5670)
		담당자	사무관	허세명 (051-773-5673)
	해양정책국 해양개발과	책임자	과 장	이인자 (051-773-5240)
		담당자	사무관	김정희 (051-773-524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자유이용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